

# 순정이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마태 11, 7b)

대림 제3주일(자선주일)  
제1독서 : 이사 35, 1-6a, 10  
제2독서 : 아고 5, 7-10  
복 음 : 마태 11, 2-11

## 강론

## 소리

### 죽음 앞에서 만난 주님

유종환 신부 / 어양동 천주교회

몇 달 전 나는 두 브레시디움 단원들과 환자 방문을 하고 1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었다. 마지막 열일곱 번째 교우가 승강기에 들어서는데 순간 승강기가 작동을 멈추고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아, 내가 이렇게 죽다니...’ 하느님 앞에 설 순간을 떠올렸다. 주님 앞에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며 자랑할 일들은 떠올려지지 않고,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지 못한 일들만 생각이 났다. 30여 초 순간적이었지만 지금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무서워 벌벌 떨고,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았다. 이렇게 한 생을 마칠 것을. 그동안 지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며 살아왔던 지난 삶이 한 없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웠다.

진정 죽음 앞에서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주님을 성실히 섬긴 일들과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봉사한 일들만이 필요하다. 즉 일상의 기도, 미사에서 말씀을 듣고 성체 안에 주님을 모시는 일, 미소한 형제들을 생각하는 행위들, 선교 등은 값지고 영원한 천상 것들이다. 그러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행하며 살아야 될 가장 필요한 일들이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이웃 형제들과 더불어 작은 봉사를 하며 살아가는 소박한 삶은 현세의 권력과 명예 등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다 해도 선행의 일만은 천상의 행복을 안겨 줄 것이다.

“이 미소한 형제 중 하나에게 해 준 것이 곧 나에게 해 준 것이니라”(마태 25, 31-46 참조)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 불우한 이웃에 관심을

‘유명 연회장과 관광지가 망년회와 연말연시 성수로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원이란데 양로원과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은 어느 해 연말보다 썰렁하다고 한다. 자선남비 앞에 멈추는 발길도 뜸하다는 소식이다.

세밀을 스산하게 하는 일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잇단 구속과 비자금 수사확대로 사회분위기가 위축되면서 기업가 독지가들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든 때문일까. 그보다는 우리 사회의 인정이 날로 메말라 가고 불우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이리라.

정치와 사회가 어수선할 때일수록 불우 이웃은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다. 어려운 처지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끈끈하게 살아가는 불우한 이웃들을 들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다.

우리네 복지환경이 중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을 탓할 수만 없다. 국민들 모두가 불우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고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겠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는 세밀에 서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그것이 크지 않아도 좋다. 마음을 활짝 열고 정성이 담기면 된다.☐

### 순정이 산책



형제는 어느쪽?

성서교실 65

“야곱의 아들들이 모여와 들어라”(창세49, 1~18)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내려 준 마지막 축복은 시로 되어 있는데, 축복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이름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12부족들에 대한 신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신탁이라는 말은 하느님의 계시로 미래의 일을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한다. 이 축복의 저자는 야훼스트로서 다윗 가문을 배출시킨 유다의 출중함과 계속되는 기근에서 야곱 집안을 살렸던 요셉의 특권을 강조하고 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식들을 모두 부른다. 축복은 보통 두 가지 기회에 주어진다. 하나는 자식들이 먼 길을 떠날 때, 다른 하나는 죽음의 침상에서 남은 후손들에게 주어진다. 야곱은 첫 아들 르우벤에 대해서 우선 “너는 내 맏아들, 내 힘, 내 정력의 첫 열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 후, “너무 우쭐대고 세차다”고 배척한다. 르우벤이 배척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야곱의 소실 빌하를 범하였기 때문이다(35, 21-22).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들의 동복 여동생 디나를 겁탈했다 해서 세제의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들을 폭력의 편에 선 자들로 몰아부친다. 거기에 대한 벌로 시므온 부족은 후에 남왕국 유다 부족에 흡수되었으며, 레위 부족은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한 평의 땅도 가지지 못했다가 나중에야 사제 지파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신명33, 8-11).

이어지는 유다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유다 부족이 전부족을 통치했던 다윗 왕 시절에 나온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야훼스트가 이용한 전승이 대부분 이미 왕정시대 이전에 생겨난 것으로 보아 판관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그 용맹을 유감없이 드러냈던 유다 부족을 칭송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러나 유다 부족에 대한 신탁은 다윗 왕과 연결된 메시아 시대의 희망을 동반하고 있다. “유다 너는 네 형제들의 찬양을 받으리라”는 말은 ‘너는 네 이름이 뜻하는 바 그대로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어 유다는 사자와 비교되고 있는데 무서운 힘의 소유자를 사자로 비유하는 일은 성서에서 종종 있는 일이다(민수23, 24).



그 다음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휘봉이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와 “참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분이 와서 만백성이 그에게 순종하리라”는 표현은 비록 메시아라는 이름이 언급되진 않지만 그 분위기로 보아서 메시아 시대를 지배할 것이며, 그의 후손 가운데 만백성에게 순종을 받을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신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어지는 포도나무의 포도주, 그리고 새끼나귀와 우유는 메시아 시대의 축복으로 인한 풍요로움과 혜택을 가리킨다.

즈블론은 지리적인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즈블론이 실제로 해변가에 살며 해상무역을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미심쩍다.

이싸갈은 힘센 나귀로 비유되고 있는데, 이는 힘은 세지만 멍청하고 게으르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르단 강 북서 지방에 주저앉아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사역을 당하게 된다.

단은 유다처럼 힘이 세지는 못하지만 그 지략과 용맹에 있어서는 결코 다른 부족들에 뒤지지 않는다. 단은 부족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할 정도로 작은 도시 하나만 가지고 살았지만 승리에는 강했다.

자식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 또는 예언을 보면 그가 자식들의 모든 과거와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문노트사

문구·사무용품 전문도매센터  
문구점 개업 상담 전문  
크리스마스 추리전문

원 수 관

☎ 83-3352, 7720

FAX 83-7721

현대체육사 의료기

케스트 등산점, 헬스기구, 무용복, 에어로빅, 수영복, 게이트볼, 줄리닝, 유니폼, 선물기념품, 상패, 혈압계, 혈당계, 안마, 숙은습찜질기, 원격의선 등

김 병 섭(프란치스코)

창인동 천주교 상가

☎(0653)841-6760, 842-8949

우성주얼리

예물 및 각종 원석 가공판매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호박, 자수정, 진주

김 순 회(세실리아)

익산시 영등동 224-2

☎ (0653)835-1660

하이패션

미드모아젤 전주점 오픈

(구·라모드)

나 경 섭(안셀모)

오 정 애(젤 마)

전통백화점←기린오피스텔 중간

☎ 88-8620



잠간

대림과 자선

어떤 가난한 도시에 여기 저기 굶주려 쓰러져 가는 것을 본 한 사제가 하느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느님 당신이 창조하신 이 자녀들이 이렇게 굶주리고 억울하게 죽어 가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당신이 만드셨다면 무슨 대책을 세우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나는 영적인 존재라 손과 발이 없다. 나는 손과 발이 있는 너를 대책으로 세워 놓았는데 왜 너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느냐? 빨리 가서 그들을 구하여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메우시고,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갈 힘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자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차원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동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선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와 도움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의 부족함을 메꾸어주는 것,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은 춥고 쌀쌀한 곳이 아니라 따스한 곳임을 일깨워 주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며,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미사중에 자선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이웃을 함께 걱정할 줄 모르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소경이요, 절름발이요, 병자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는 우리들이지만, 영적으로는 각기 다른 모습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인지,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내 주머니에 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만 작은 것이 모아지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나눕시다.

이 대림시기에 진정으로 하느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고대한다면 서로에게 진정한 하느님의 손과 발이 되십시오.

교구 소식

1. 성탄 전야미사 : 12월24일(일) 오후11시, 중앙 성당
  2. 천호 피정 안내 : 12월23일~25일, 주제-기도체험, 하느님 체험, 강사-유영봉 신부, 문의 73-6600
  3. 신학생 3·4학년 현장생활체험 : 12월2일~96년 1월19일
  4. 성직자 묘지미사 : 12월18일(월) 오전10시30분, 성직자 묘지
  5. 사제 어머니 모임 : 12월20일(수) 오후2시, 전동 성당
  6. 장애인 협의회 성탄 행사 : 12월24일(일) 오전11시, 가톨릭센터
  7. 교도소 후원회원 월례미사 : 12월18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8. 전주교도소 성탄(방학)미사 및 재소자 연극 발표 : 12월20일(수) 오후1시, 교도소 강당 <많은 기도 바랍니다>
  9. 전주 선택 송년모임 : 12월25일(월) 오후2시 예정학원2층-안골 거성프라자앞
- ※ 가톨릭 사진가회원 모집합니다. : 사목국 홍보부, 문의 ☎ 85-0041

요심이 (1163) 김병오



**전주교구청남지사서무직원모집**  
 · 모집부분: 보도, 출판, 교열 등 1명  
 · 응모자격: ①4년제 정규대학 졸업 ②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③영세한 지 5년 이상된 자 · 제출서류: ①자필이력서 ②세례증명서 ③최종학교졸업증명서 ④본당신부 추천서 각 1통 · 서류제출처: 전주교구 전주교구 사무처(☎85-0041) · 서류제출마감: 12월20일(수)까지

**우편통신에 의한 신학공부(2년제)**  
 · 대상: 전신자(연령제한 없음)  
 · 과목: 성서, 신학전반, 영성  
 · 접수기간: 96.1.4~1.23  
 · 원서청구시 소액환 ₩5,170동봉 서울 종로구 혜화동90-12 ☎(02)747-8501 가톨릭교리신학원 신학통신교육부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オルガン,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 지도 담당 동서 관통로 다가고 입구 김태우(אלפוס) · 황진숙(안젤라) ☎ 88-7717~8

**LG 에어컨 전문점**  
 \* 96년 신제품 예약판매 \*  
 · 12개월 무이자 할부판매 · 12% DC  
 · 기본설치비 무료 · 12월18일까지  
 원종삼(발바라) · 원승연(도밍고)  
 삼화공조 ☎251-0190~2

**덕진 삼익피아노**  
 (서정우 특약점)  
 · 국가공인 1급 A/S 지정점  
 · 36개월 할부, 중고보상교환  
 서정우 · 이혜경(글러라)  
 북전주전화국←→법원 중간 ☎ 253-3232

**박진상 한의원**  
 추나(허리치료) 전문  
 박진상  
 김정연(안젤라)  
 전주시 인후동 안골 사거리 (인후 성당 앞, 전북은행 옆) ☎241-5553, 242-5553

매주 판매합니다  
**대구(지인 백합매주)**  
 · 종류: 개량매주1말-32,000원, 고추가루1kg-8,000원, 막장가루1kg-8,000원, 정국장가루1kg-8,000원  
 · 구입처: 각 분당 여성분과  
 · 문의처: 전주교구 여성연합회 ☎ 74-5741, 253-0931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범영배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대림 제3주일
- ◎ 오늘은 자선주일: 2차헌금 있음.
- 1. 본당 관공 일정
  - 18일(월): 손님 신부님 관공 저녁 7시
    - \* 새벽미사가 없고 저녁미사 있음
  - 19일(화): 후 2시~5시 저녁미사 후
    - 20일(수): 후 2시~5시
- 2. 대림절 특별강론: 21일 저녁미사 후, 범석규(마리아) 신부님
- 3. 영세자 면담: 22일(금) 저녁미사 후
- 4. 초등부 성탄 예술제: 24일 후 2시~4시까지, 지하 교리실  
중·고 성탄 예술제: 24일 후 4시~6시
- 5. 미사시간 안내
  - 24일(일)-새벽 5시30분, 전 9시, 전 10시30, 후 7시  
후 9시-영세식, 밤 11시-자정미사
  - 25일(월)-전 10시30(공식미사) 후 7시(저녁미사)  
\* 영세자 환영식-공식미사 후, 지하교리실
- 6. 모임: ①대건회, 자비의 모후Cu. (오늘 공식미사 후)  
②여성연합회(20일 어머니미사 후)  
③천사의 모후Cu. (24일 공식미사 후)
- 7. 금주 침소: 중노 8, 9반  
차주 침소: 중노 10, 11반

□ 지난주 봉헌금: 1,043,870원 □ 교무금: 1,718,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 오늘은 대림 제3주일(자선주일-2차헌금이 있습니다)
- 1. 연차 총 친목회: 오늘 후 2시, 장소-강당  
\* 많은 참석과 관심바랍니다.
- 2. 참회의 날: 12월20일(수) 후 7시30분
- 3. 세례식: 12월23일(토) 후 7시  
\* 통신교리 수료하신 분은 수료증을 원장 수녀님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종합교리는 12월18일(월)~22일(금) 후 7시30분, 강당 (통신교리자는 꼭 참석하여 주십시오)
- 4. 성탄 미사 안내: 성탄 자정미사-24일(일) 후 10시  
②성탄절 미사-25일(월) 전 10시, 후 4시(어린이미사)
- 5. 초중고 어린이 잔치: ①24일(일) 후 7시~9시30분, 성당 ②행운권을 추첨하여 주점한 상품도 드립니다. 행운권 1장당 1천원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이익금은 불우이웃 돕기에 쓰여집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6. 모임 안내: 성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유아방
- 7. 침소 안내: 금주-사랑하울 어머니 차주-사랑의 샘

□ 지난주 봉헌금: 963,550원 □ 교무금: 3,988,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평

- ◎ 오늘은 복자성당 30주년 본당의 날(자선주일 2차헌금 있음)
- 기념미사: 10시 반 이병훈 주교님 주례
- ◎ 축! 본당의 날 표창 "축하합니다!"  
주교님 표창-허제석 바스티아노, 안철조 도마 이육재 아벨리나, 유순자 마리아  
교황님 강복장-황길평 프란치스코, 신태섭 안토니오, 지해홍 요한보스코, 김현덕 다미아노
- 1. 본당의 날 행사에 협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꾸리아, 신협(20만원) 대건회, 성우회, 오셀화(15만원) 애령회, ME(10만원) 안나회(5만원) 자모회, 성가대, 성모회, 여성분과(3만원)
- 2. 복자 성당 30주년 및 '오시는 주님' 맞이 신앙 대강연회: 22일(금) 7시반-이순성 신부님(예수 성탄의 신비)
- 3. 예비자 집중교리: 19(화)~23(토) 저녁 7시반
- 4. 성탄 미사 시간 안내  
24일(일)-오전 6시, 9시, 10시 반, 밤 11시(성탄 자정미사)  
25일(월)-오전 9시(초,중,고 미사) 10시반(영세식) 저녁 7시
- 5. 모임: 빠스카의 송년모임-오늘 오후 5시, 울트레야-19일(화) 성모회-21일(목) 빈첸시오회-23일(토)  
금주 전례: 해설-오교성, 독서-막남수 부부 봉헌-오경의 가족  
성당 침소: 12월23일(토) 평화의 모후Pr. 순결하신 어머니Pr.
- 주일헌금: 643,600원 □ 교무금: 1,447,500원
- 감사헌금: 50,000(유두석 요셉)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복심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강덕용

- ◎ 오늘은 대림 제3주일(자선주일)-교구 2차헌금
- 1. 모임: ①새 영세자 모임, 성가대-오늘 공식미사 후  
②자모회-다음주일 ③장년회-23일(토) 성당 회의실
- 2. 예수 성탄 대축일 맞이 실천사항: ①고백성사 보기 ②교무금 봉헌 ③잘못된 습관 고치기 ④선행과 사랑의 실천
- 3. 성탄절 성가연습: 12일(화)부터-매일 저녁미사 후
- 4. 성탄절 고백성사: 성사표 지참하여 매미사 전후 고백실
- 5. 불우이웃돕기 성미 및 성금봉헌: 세대별로 성의껏
- 6. 사제 양성 후원금 봉헌: 세대별로 1천원 이상-구약장에게
- 7. 성탄절 구유 및 제단장식 꽃 봉헌: 많은 참여바랍니다.
- 8. 성탄절 영세: 23일(토) 저녁 6시미사중
- 9. 성탄 대축일 행사: 24일 ①초·중·고 학생 예술제-저녁 7시  
②구유축성 및 경배예식-저녁 10시 ③전야미사-저녁 10시30분 \*25일 ①대축일 미사-10시 ②친교의 시간-11시
- 10. 감사!: ①성전보수비 봉헌-강인기(5만원) 총 9,248,000원  
②꽃봉헌-김월주, 전선풍(1만원)
- 11. 성당 침소: 금주-천사의 모후Pr. 차주-천주의 성모Pr.
- 12. 금주 전례: 해설-우경숙, 독서①최경림 ②송정자 봉헌-남현준 가정 차주 전례: 해설-이춘봉, 독서①김완식 ②이석남 봉헌-김한철 가정

□ 지난주 봉헌금: 303,010원 □ 교무금: 503,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부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동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주환

- 1. 금주: ①자선주일 2차헌금  
②바리의 성모Cu.(후 2시)  
③중·고 학생 관공성사-오전 9시미사 후 사랑방
- 2. 성화회: 18일(후 7시)
- 3. 성모회: 19일(전 11시)
- 4. 빼앗다회: 20일(전 11시)
- 5. 성심 유치원 방학식: 19일(전 10시)
- 6. 영세식: 25일 공식미사중  
영세 대상자 집중교리: 19일~21일  
영세 대상자 면담: 19일 후 2시부터(사제관)
- 7. 성탄절 행사: 성탄 성야미사-24일 밤 11시  
성탄 성야 행사-밤 8시부터(성당)  
불우이웃돕기 사랑 나눔 대잔치  
(24일 공식미사 후와 저녁 8시부터~0시, 성당바탕)  
25일 낮미사 오전 9시, 10:30, 오후 3시, 5시, 7시
- 8. 십일조 감사헌금: 익명 86만원
- 9. 차주: 성마리아 꼬미시움(후 2시)

□ 주일헌금: 2,080,88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강삼근

- ◎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실 분이 이미 문 앞에서 계십니다"(야고버 5,9)
- ◎ 오늘은 자선주일, 사랑의 헌금을 바랍니다.
- ◎ 성탄 대축일 미사 및 행사 안내는 게시판 참조
- ◎ 오늘 강론: 최병남 요한, 전례부장님, 수고하시겠습니다.
- 1. 세례식: 23일 오후 5시(세례자와 대부모는 후 4:30까지 도착)
- 2. 사회 교정 사목 후원회 미사: 18일 전 10:30, 센터 3층
- 3. 교도소 성탄 및 방학미사: 20일 후 1시, 성극 발표회
- 4. 이웃 돕기 방문: 21일 전 9시(차량 봉사 환영)
- 5. 형제 기도회: 18일 저녁 8:30 ①6구역-심재평(바드리시오)택 202중 512호 ②8구역7반-박귀섭(요한)택 7중601호
- 6. 봉성체: 22일 전 9시(사무실에 미리 신청)
- 7. 새 예비자반 모집: 96년 1월 4일 목요일 저녁 8시(현재 수요일 반은 목요일로 변경함)
- 8. 회의: 성소후원회, 임마누엘, 한빛회-오늘 공식미사 후, 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평화기사회-19일 저녁 8시, 성모회-20일 어머니미사 후, 울트레야, 풍송회-24일 공식미사 후.
- 9. 축! 혼인: 24일 12시 행복예식장: 신랑-이형주, 신부-유순, 이종철(플라드)씨의 자
- 10. 예수님상(대리석): 한인 선교회 성전 건립 기금 30,000원
- 11. 신축기금 마련 사진 판매: 백두산, 금강산, 바티칸(성당 내 전시해 있습니다)

□ 주일헌금: 1,434,060원 □ 교무금: 4,153,000원

상설 고백소: 매주 화요일~금요일 오후 2시~5시, 전동 성당(12월달은 쉽니다)